

한국생명농업운동의 역사

최 병 칠(목사, 한국생명농업협회회장)

서 론

농업은 원래 인간을 비롯하여 동, 식물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 생명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인류의 생업을 말한다. 이 농업이 최근에 와서 유기농업, 자연농업, 환경농업 등으로 불리우게 된 원인은 화학비료가 발명되어 퇴비를 대신하게 된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본래 토양은 창조 이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작물을 길러내어 충실한 영양을 인간과 가축에게 공급하여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독일 농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Justus von Liebig 1803-1873)에 의해 1850년에 화학비료가 발명된 이후 장기적으로 같은 농토에 투여되면서 농토의 파괴 즉 산성화를 시작으로 토양이 점점 지력을 잃고 황폐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생산이 저하되거나 그 식량의 결점으로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는 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900년부터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미국 농림부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농학자들을 전세계에 파송하여 세계농업정보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수집하였다. 한국, 중

국, 일본 3국을 조사한 킹(F. King)교수는 『40세기의 농부들』 *Farmers of Forty Centuries*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농업은 유기농업을 4000년 간 계속해 온 유기농업의 종주국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미국은 유기농업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국의 알버트 하워드(Albert Howard)는 그의 저서 『농업성전』 *An Agricultural Testament* 에서 화학비료의 피해와 대책을 강구하는 생명운동 즉 생명농업운동을 제창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화학비료를 비롯한 화학적 농자재를 사용한 결과 자연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리는 작가와 연구자들의 저서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는데 미국 여류작가 레이첼 카아슨의 『침묵의 봄』 *Silent Spring*, 일본 여류작가 아리요시 사와코의 『복합오염』 등은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국제적 생명운동을 태동케 하였다. 1946년 창립된 영국의 '토양협회'(Soil Association), 1970년의 '로마클럽', 1972년의 '국제유기농업연맹'(IFOAM)의 창립 등은 생명운동 내지 생명농업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생명농업의 원리와 정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의 생명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식량을 생산하는 인간의 생업이라고 하였다. 즉 생명을 양육하는 천직으로써의 농업은 생명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은 곧 생명의 최소단위인 각종 미생물이 토양 속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물질의 순환에 의하여 또 다른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가는 생명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히кс 경(Sir. Cedric Santon Hicks)의 『인간, 자연, 문명』과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은 공통적으로 농업의 역사를 기술하였는데 즉, 인간은 약 1만년 전부터 집락(集落)을 형성하고 정주하여 그 땅에서 식량을 얻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인

간의 배설물이나 폐기물의 재순환이 생태적인 미생물의 활동과정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 미생물의 존재와 그 역할을 발견하여 토양 미생물학으로 발전시킨 것은 1888년 헨리 켈과 빌파트의 연구 결과 때문이다. 그들은 공기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식물의 뿌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화합물을 만드는 토양 세균의 존재도 함께 발견하였다.

다시 말하면 뿌리혹박테리아는 식물에서 당질을 에너지원으로 얻고 한편 박테리아는 흙 속의 질소를 고정한다. 이 과정은 질소고정이라고 하며 분자 상태의 질소가 박테리아 속에서 용해성 질산염으로 바뀌고 물에서 뽑아낸 수소와 결합하여 아미노산 형성의 초기 생성물이 되어 박테리아의 원형질의 구성 재료가 되는 것이다. 박테리아가 죽으면 이 단백질은 분해되어 용해성인 질산염이 되고 뿌리혹에서 뿌리로 흡수되어 진액과 함께 잎으로 운반되고 거기서 다시 아미노산으로 합성되며 마지막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된다.

확실히 이것은 살아있는 토양에서 볼 수 있는 다채로운 과정에서 가장 뚜렷한 광경이며 이 토양속에서 식물은 정상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 이것은 식물과 미생물의 공생관계에서 성립되는 생명농업의 원리이며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물적 활동에 의한 흙의 구조와 그 작용으로 생장하는, 즉 식물에게 생명력을 주는 농업을 알버트 하워드는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이라고 불렀으며 킹 교수는 영속적 농업(permanent agriculture)이라고 하였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생물농업(biology farming)이라고 불렀다. 이들 호칭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생명농업'으로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2. 1945년 이전의 생명농업

단군 개국 이래 약 4400 여년 간 우리농업은 생명농업의 시대였을 것이다. 전술한 킹 교수는 영속적 농업(permanent agriculture)이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농업이 수천 년 간 영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고대 통치자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록을 보면 단군은 농업을 나라의 근본이라고 장려하였으며, 신라 박혁거세는 (BC 41년) 농잠업을 권장하였고, 백제 온조왕 14년(BC 5년)에는 권농일을 제정하였고, 고구려 평원왕 25년(583년)에는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였으며, 고려의 왕건은 원년(918년)에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성종은 7년(988년) 벼씨를 골라 왕에게 드리는 헌종례(獻種禮)를 시행하고 왕이 직접 적전(籍田)을 경작하였다고 하며, 세종은 12년(1430년)에 『농사직설』(農事直說)을 반포하였다.

3. 생명농업의 쇠퇴기 (1945년-1970년)

1910년 한일합방과 1945년 해방을 지나 퇴비생산의 공식적인 기록이 마감된 1964년까지 55년 간 퇴구비의 사용량은 매년 평균 3,000만 톤에 이르렀다. 토양내 유기물함량은 1921년의 3.4%에서 1964년에는 2.0%로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생명농업은 지속되어 왔다.

화학비료의 생산량은 1960년에 요소 13,359톤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에는 132만 톤으로 약 10배 증가하고, 1979년은 300만 톤을 초과하는 최고 소비를 기록하였다. 1986년에는 293만 톤, 2000년에는 232만 톤을 소비하여 그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생명농업의 후퇴와 함께 화학농법인 죽음의 농업이 반비례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화학비료가 사용된 시초는 일제시대 일본인 지주들을 통해서였다. 화학비료가 발명된 후 거의 100년이 경과한 1940년대에 일본인 지주들을 통해 소작인들이 소량 사용하였던 것이다. 일반 농민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국내에 화학비료 공장이 설립된 이후이다. 해방전의 비료공장은 북한에 편재하여 있었고 주

로 질소비료를 공급하였으며 배급제이므로 자유롭게 유통되지는 못했다.

해방 후, 남한에 소재하였던 삼척, 인천, 목포 등 몇 개의 비료공장 이외에 수 개의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었으나 그 시설이 빈약하고 원료난과 기술부족 그리고 북한의 송전 중단으로 인한 전력사정의 악화로 1947년의 비료생산량은 1,699톤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일제 말기에는 비료공장이 모두 군수공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퇴비, 녹비 등 자급비료 생산을 강요당하여 1944년에 남한에서만 4천만 톤을 생산하였다. 해방 후 자급비료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낮아 정부는 비료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1946-47년에 화학비료를 31만 톤, 1948년에는 46만 톤을 수입하기도 하였다.

1950년 6·25 전쟁의 발발과 그 장기화로 화학비료는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였는데 1951년에 6만9천톤을 수입하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1957년에는 99만5천 톤을 소비하였다. 이는 외화로 계산하면 매년 6천만 불이 된다. 그리하여 국내에 비료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1955년에 AID원조 자금으로 경기도 소사와 충북 단양에 각각 공장을 건설하였다. 그 후 1961년에 호남 비료공장과 1962년에 나주 비료공장을 준공하였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이후 군사정권은 공업화 우선정책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차에 걸쳐서 추진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농촌은 대량 이농으로 고령화되었고 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경제적 악화와 화학비료 및 각종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농토와 자연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래 유기농업의 중추국으로 불리었던 한국의 농업은 서양의 과학농업을 추종하는 우를 범하여 한 때는 세계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최고 소비국이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하였다. 단군 건국 이래 이어온 생명농업은 종적을 감추고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한 화학적 농법이 관행농업으로 정착되어 버린 것이다. 1998년을 정점으로 점차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사용량은 과다한 실정이다.

히스가 일찍이 경고한 대로 “생물학적 원리인 생명농업 대신에 경제적 원리에 따라 오로지 화학비료, 살충제, 제초제에 의지하여 식량 생산을 기계화하고 촉진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 생존의 바탕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4. 생명농업 부활운동의 태동기 (1970년-1990년)

1) 세계적 동향

영국은 1770년대의 산업혁명 발상지로써 기계의 발명과 공업화 그리고 도시화를 선도한 국가이지만 최초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국가로이기도 하다. 1952년과 1962년 런던 스모그사건으로 12,000명이 사망한 사건은 유명하다. 1959년 멕시코의 Poza Rica 스모그사건 등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 대기오염의 심각함이 표출되었다.

또한 인구증가로 인해 식량문제가 발생하여 세계 대기근이 인도를 비롯한 영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

화학비료에 의한 토양오염 또한 심각하여 1900년에 미국 경작지의 50%가 황폐화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되어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환경운동과 함께 생명농업운동이 대동하여 1960년대에 미국대학생들은 Ecology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전술한 레이첼 카아슨의 저서 『침묵의 봄』은 케네디 대통령이 DDT 제조금지 법안에 서명하도록 결심하는데 크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생명농업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알버트 하워드 경은 40년간 퇴비를 연구하여 『농업성전』 *Agricultural Testament* 을 저술하였다. 그는 미생물학과 식물병리학의 전문가로서 연구와 실기를 겸하여 갖추고 있었다. 그는 장기간의 현장 실험을 통해서 토양조건에 적합한 뿌리성장을 만들어 주면 작물에 대한 병충해의 공격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토양과 작물과 가축의 상

호 연쇄에 의하여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중국을 비롯한 극동 지역의 퇴비를 이용한 경험주의적 농법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생명의 근원으로써의 토양을 그 누구도 소모하거나 죽일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기독교대회에서 채택한 5대 기본적 원리의 하나를 말하였다. “지구의 자원은 전 인류에게 내려 준 하나님의 선물로써 또한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에 대해서 적절한 고려를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환경과 농업의 파괴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고 회복하려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각 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로마클럽(Roma Club)은 직업과 인종을 초월한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하여 1970년에 발족한 미래사회연구 단체로써, 과학기술의 진보와 이에 따른 인류의 위기를 시스템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목적으로 창립하여 연구결과물로 『성장의 한계』를 발행하였다.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는 제1회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여 「인간환경선언」을 발표하였고, 제2회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어 104개국이 리우선언문을 채택, 발표하였다.

1971년에 국제유기농업연맹(IFOAM)이 프랑스의 ‘자연과 진보’그룹의 제창으로 창립되었는데, 2년마다 각 국을 순회하면서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대표는 1982년부터 1996년까지 필자가 참석하였으며 최근에는 손상목, 정진영 등이 참석하고 있다. 1995년에 ‘아세아지역 유기농업협회의’가 일본에서 창립되었는데 한국대표로 최병철, 김종무, 정진영 등 3명이 참가하고 필자가 기조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2) 국내의 동향

1945년 해방이후의 혼란과 6·25 사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 또한 정부의 저미가정책(低米價政策)으로 농

민은 생산의욕을 잃게되어 영세농가와 소작농민들은 미국의 식량원조로 근근히 살아가는 도시로 무작정 농촌을 탈출하는 일이 많았다. 그 당시는 식량의 질보다 양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식량증산에 역점을 두고 증산 왕을 표창하는 등 오직 식량증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생명운동 및 생명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각자들을 든다면 김용기, 강태봉, 김서정, 김재식, 신병규, 주옥로, 장일순, 원경선, 오재길 등은 1970년 이전의 인사들이며 1970년 이후에 활동한 선도자들은 김영원(농민, 문필가), 김성순(포도재배연구가), 김성훈(교수, 농업경제학 전 장관), 이종환(유통), 정진영(유기농업운동가), 박재일(유통, 한살림), 최완택(목사, 환경운동가), 최 열(환경운동가), 김재옥(소비자운동가), 김지하(시인), 김종억(발명가), 한경호(목사, 생명운동), 남상도(목사, 생명운동), 차홍도(목사, 생명운동), 정상묵(유기농업실천가 전 정농회장), 강대인(정농회장, 유기농쌀 연구), 최병칠(유기농 박사 제1호, 유기농업학회 창설자)등 인사들이 활동하였다.

공업화 추진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은 가속화되어 농촌의 젊은 노동력은 공업노동자로 이동하고 농촌은 노령화되어 죽임의 화학농법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이러한 때에 새로운 농업기술 특히 화학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퇴비를 생산하여 짓는 유기농업을 권장하는 일은 농민에게 호응을 얻기가 어려웠다. 군사정권은 유기농업과 환경운동을 추진하는 개인과 단체를 감시와 탄압으로 대응하였는데 1980년도에 가장 심하여 많은 생명운동 인사들을 정치범으로 강제 연행하여 고문하였다. 필자도 1980년 3월2일부터 4일간 모(某)기관에 감금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그 외에 환경운동가들도 많이 수난을 당하였다.

1976년 2월 정농회(正農會)가 오재길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30여명의 농민회원으로 창립되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조직한 애농회(愛農會)의 창설자 小谷 純一회장의 2년 간에 걸친 유기농업 교육을

듣고 한국 유기농업단체 제1호로 출범하였는데 생명농업의 실현을 위해 매년 2회 내실 있는 교육과 실천으로 꾸준히 발전하여 500명의 회원으로 성장하였다. 1987년 2월 생산자 회원들의 생산품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농유통센터를 설립하였는데 한국에서 가장 신용있는 모범적인 유통기구로 성장하고 있다.

1978년 7월에는 한국유기자연농업연구회(회장 유달영)가 창립되었다. 이후 정진영 부회장의 적극적 활동과 교육의 성과로 발전하여 2000년 현재 25,293명의 회원으로 성장하였는데 후에 한국유기농업협회로 개칭하였다. 현재 한국의 유기농업을 선도하는 최대 단체로써 농산물 유통기구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제2대 회장에 정진영이 취임하였다.

1980년 초, 장일순, 김지하 등이 생명운동을 제창하였고 그 이념적 토대 구축을 위해 1988년에 '한살림연구회준비모임'이 결성되어 1989년에 「한살림선언」을 공표하고 '한살림'을 창립하였다.

1982년 9월에는 '한국유기농업생산자소비자단체연합회'가 모든 유기농업단체를 망라하여 흥사단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장으로 최병철을 선출하고 유기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출발하였다.

1989년 4월 원주 호저교회(한경호 목사)는 수년간 농민 신도들이 유기농업을 실천하면서 농촌교인들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호저소비자협동조합'(현 원주생협의 전신)을 결성하였는데 이는 기독교 생명농업운동의 첫걸음이었다.

1990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출범하면서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는 운동방향을 바꾸어 생명공동체운동을 중심과제로 삼고 제2기를 시작하였다.

1991년 12월, 한국유기농업학회(회장 이주삼)가 교수, 유기농업단체, 농민, 소비자 등 130명의 회원으로 창립하여 초대회장으로 최병철 교수를 선출하고 13년이 경과한 현재는 회원 4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신 군사정권은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20여년 간 줄곧 공업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 확보를 위해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는 식량증산정책을 추진하고 유기농업을 배격하여 왔지만 1970년부터 강력하게 일어나는 세계유기농업운동의 조류와 환경공해방지운동 등 생명운동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부 당국의 인식이 싹트게 되어 1994년 농림부에 유기농업발전기획단(단장 농림부차관)을 설치하였다. 학계, 민간 유기농 단체, 농림부의 각 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유기농업을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명칭은 위원들과 협의없이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유기농업을 '환경농업'이라고 결정하여 1997년 '환경농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제정되었다. 이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되고 다시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과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을 '친환경농업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다.

한경호 목사는 『농촌과 목회』 통권 21호(2004년 봄호)에서 다음과 같이 생명농업의 동향을 피력하였다. “한국에서는 생명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소비자와 생산자가 연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한국농업을 보호하고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5. 한국 생명농업의 현황

현재 '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 가입된 단체는 33개(2004년 7월 현재)이며 가입하지 않은 단체도 상당수가 있으므로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최근의 농림부 통계(2002년)의 친환경농업의 현황을 보면 인증 농가수는 31,342호로 전체 농가 대비 2.4%이며, 친환경농업을 하는 경지면적 28,000ha 는 전체 경지면적에 대해 1.5% 이라고 한다. 국제적 통계(Soel-Survey 2003.2)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유기농가수는 2,798농가이고 농경지에 대한 유기농 비율은 0.19%이

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100여 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 포함)생산농가로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00년에 353농가에서 2002년은 1,505농가, 2003년에는 2,756농가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 '친환경농업법'에 대한 문제 제기

필자는 당시 '유기농업발전기획단'의 학계 대표로 선정된 위원이었는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하고자 한다.

1) 명칭의 문제

회의를 소집한 농림부 장관은 유기농업발전기획단 이라는 명칭으로 소집하고 단장으로 농림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유기농업을 주제로 토의하였다. 명칭은 논의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명칭은 '친환경농업법'이었다. 그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가?

2) 유기농업 정의 즉, 규정에 대한 문제

그 당시 회의에서 주로 논의 된 것은 유기농업의 정의 즉, 규정에 대한 것이었다.

(1) 화학비료의 문제

유기농업은 퇴비만을 사용하는 농법이라고 정의한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식량감산이 되면 국가적으로 식량문제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과 과학적 농법이 아니므로 새로운 농법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농림부 측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 농약의 문제

유기농업이 농약을 배제한다면 병충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과 농약은 시판되기 전에 인체나 동물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실험이 끝난 것이므로 안전하다는 것을 농촌진흥청 당시 농약국장(성명 미

상)이 강조하면서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필자가 발언한 답변의 요지는 국제적인 규제를 제시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우리도 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국제유기농업연맹의 규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농약(살균 살충 제초제, 식물생장조절제, 호르몬제, 사료첨가약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로 줄이며, 농업부산물이나 가축의 분뇨, 자연의 광석 분말(인광석, 맥반석, 제오라이트, 질석 분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영농법을 말한다”.

그리고 필자가 1965년-1970년 5년 간 양평군 양동에서 농림기술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인접한 사과 과수원에서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농약의 안개를 마시고 농약중독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농약이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잘못되었음을 피력하였다. 이 말을 모든 위원들이 받아들여 국제유기농업연맹의 규정을 따르기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1997년 제정된 ‘환경농업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결 론

생명농업운동은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농민, 생명의 흙을 지키고 줄 아는 농민, 생명이 풍성한 농산물의 생산기술을 배우려고 연구하는 농민,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랑의 농심을 가진 농민이 참여해야한다. 또한 소비하는 모

든 국민은 그러한 농민을 존중하고 그들의 땀의 댓가를 보상해 주는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생명연대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연대의식
으로 생명농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생명농업은 종합과학으로 그리고 종합 예술로 승화되기를 바
란다. ●

〈참고문헌〉

- 『한국농정 40년사』 상.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10.
『농협연감 200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1.8.
『농업성전』 알버트 하워드 저, 최병철 역, 한국유기농업보급회 1987.
『유기농법』 J.I.로데일 저, 최병철 역, 한국유기농업보급회, 1982.
『정농회보』 19, 20호, 정농회, 1997.1, 1998.12.
『농촌과목회』 통권 21, 농촌과목회편집위원회, 2004.3.
『유기농식품의 품질관리 발전을 위한 과제』 이광하,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 2004.7.
Farmers of Forty Centuries F.H.King, Rodale Press, 1911.
『한국의 유기농업운동에 관한 연구』 최병철, 중앙대학교대학원, 1988.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저, 김은령 옮김, 에코리브르, 1962.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G&C Merriam
Company, 1975.
『인간, 자연, 문명』 C.S.히스 저, 최기철 역, 삼성미술문화재단, 1978.